

2018년 02월

엘라스토머, 자동차 의존도 ↓, 산업용 비중 ↑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8년02월
분량: 114 페이지
가격: 99만원

연구원
(02)6124-6660
consulting@chemlocus.com

엘라스토머 시장은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타이어 산업과 연동되는 산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8종의 엘라스토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경화성 엘라스토머인 부타디엔고무(BR), 니트릴고무(NBR),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BR), Solution-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 EPDM, 부틸고무(IIR)와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TPV 및 TPEE의 생산 및 국내수요 현황을 조사했다.

엘라스토머, 공급과잉 지속. EPDM은 두자리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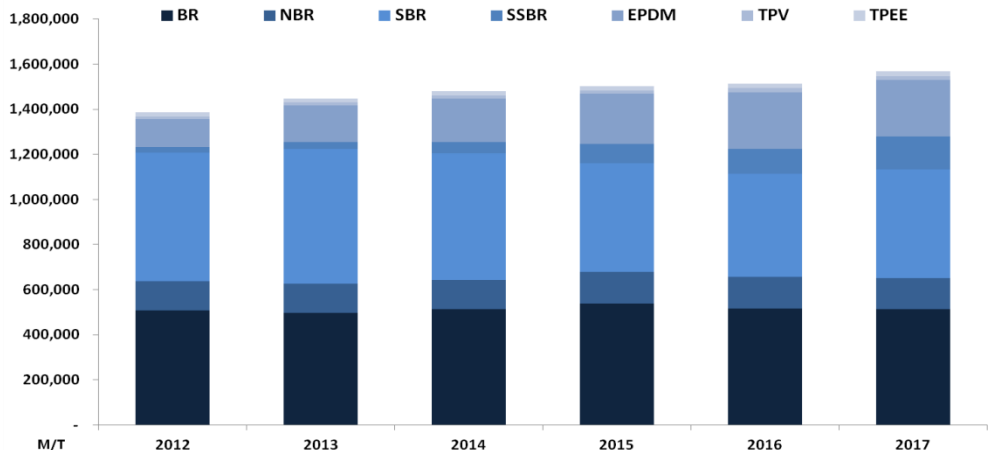
조사한 8종의 엘라스토머 국내 생산은 2017년 약 156만7200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내 생산은 5년간 연평균 2.5% 성장했으나, 국내 수요는 73만200톤 수준으로 5년간 1.6% 성장에 그쳤다.

또한 원재료 가격 변동폭은 큰 반면, 엘라스토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10%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엘라스토머 8종의 수급밸런스를 살펴보면 5년간 국내 수요는 연평균 1.6% 증가에 머물렀으나 국내생산은 연평균 2.5%으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생산의 절반 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분야로 신흥국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생산증가는 국내 엘라스토머 시장의 경계해야 될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엘라스토머 생산현황 (2012-2017(E))



Butadiene 가격 안정세 불구 합성고무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악화

Naphtha C4 유분에서 나온 Butadiene으로 BR, NBR, SBR, SSBR 등 제품이 생산되며, Ethylene에서 EPDM이 생산되어 TPV, TPEE 제품까지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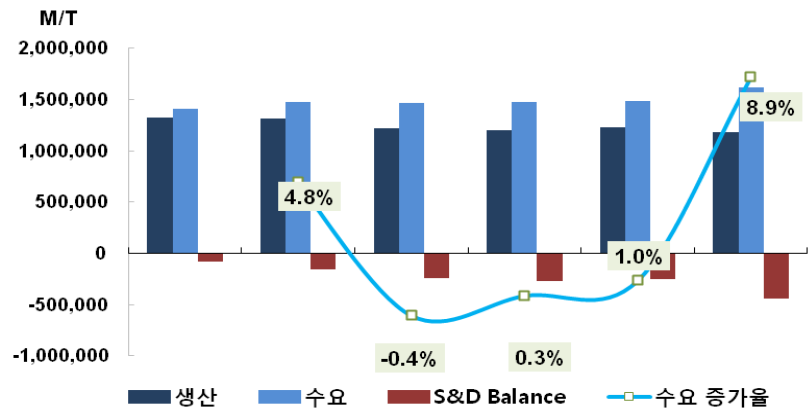
부타디엔은 2017년 1분기 정점 후 수급상황 변화로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2016년 C4유분 생산축소 및 정기보수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인한 수급 타이트 여파가 해소될 전망이다.

부타디엔 원재료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 범용 엘라스토머는 중국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범용 엘라스토머 대수요처인 중국의 자동차 성장 둔화와 맞물려 수요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Butadiene 수급동향 (2012-2017(E))



Source) CM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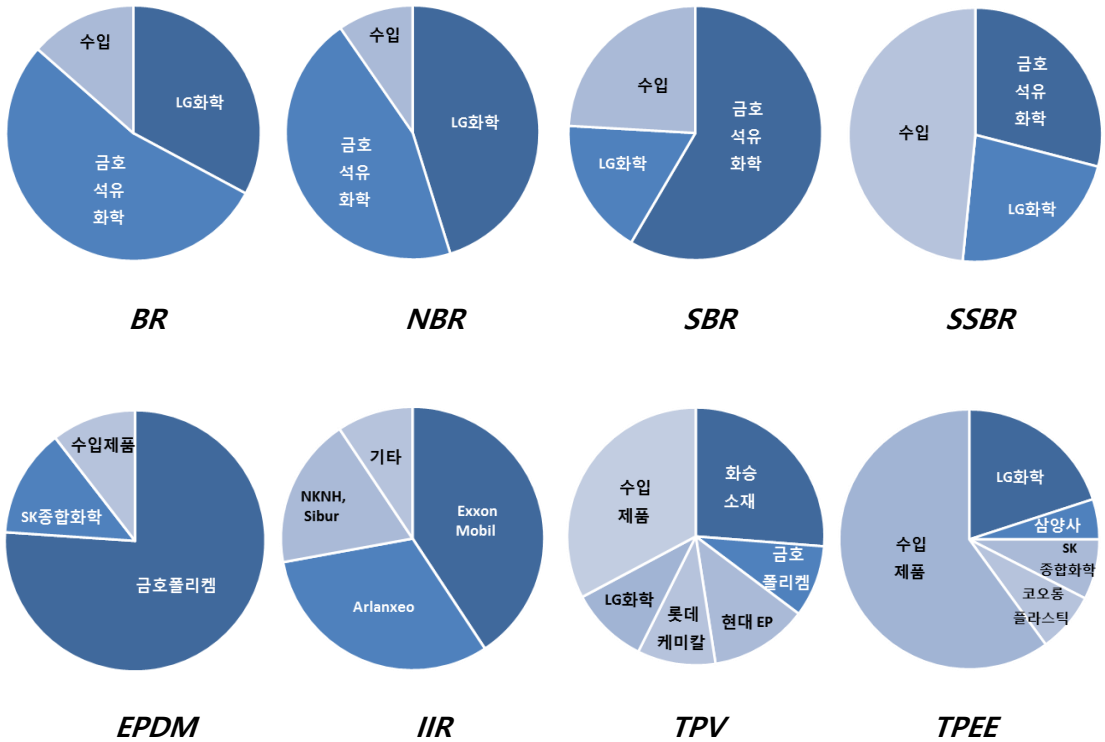
범용고무는 금호 · LG화학, IIR은 Exxon · Arlanxeo 과점

국내 엘라스토머 대표 생산기업은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 있으며, 이외에도 금호폴리캠, SK종합화학이 있으며, 열경화성 엘라스토머인 BR, NBR, SBR, SSBR은 금호석유화학과 LG화학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다.

다음으로 EPDM은 금호폴리캠이 국내 시장 75%이상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인 부틸고무 생산기업은 ExxonMobil, Arlanxeo(舊 Lanxess), NKNH, Sibur가 있으며, ExxonMobil과 Arlanxeo가 각각 40%, 30% 정도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그외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TPV와 TPEE 생산기업으로는 화승소재, 금호폴리켄, 현대EP, 롯데케미칼, LG화학, 삼양사, SK종합화학, 코오롱플라스틱이 있으나, 국내 수요의 각각 30%, 60%는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국내 Market Share 현황 (2016)



엘라스토머 수요,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 76% 이상 차지

국내 엘라스토머 용도별 수요를 살펴본 결과 국내 수요의 76%이상이 자동차 부품 및 타이어에 사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수요 성장은 1.6%에 그쳐 시장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엘라스토머 시장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최근 5년간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엘라스토머 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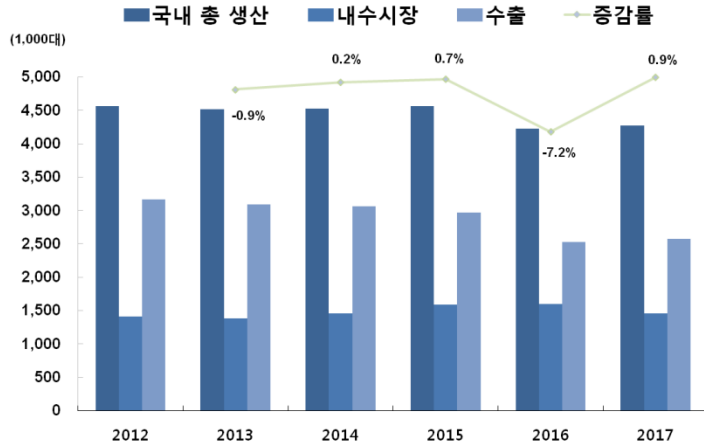
다행인것은 2017년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8년부터는 동반 성장세로 생산 및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엘라스토머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증가폭은 높지 않아 엘라스토머 시장은 2021년까지 2%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엘라스토머 시장의 정체는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산업인 국내 자동차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생산 -1.3%, 수출은 -4.1%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또한 열경화성 엘라스토머 범용시장은 저가의 수입제품 비중이 늘어나면서 국내 엘라스토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생산현황 (2012-2017(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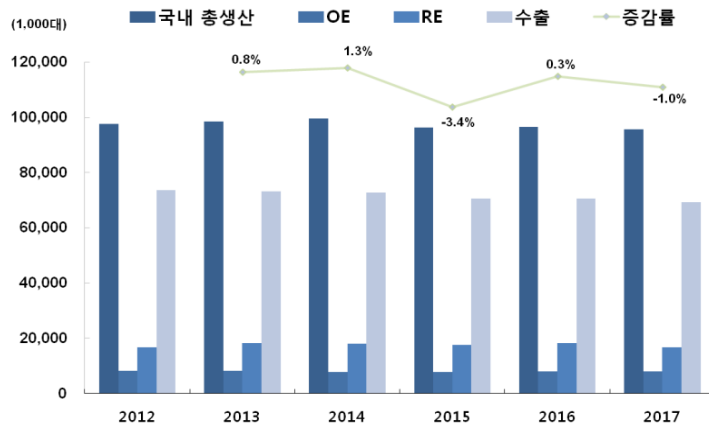
타이어산업, 자동차 산업과 맞물려 저조한 성장 유지

국내 타이어 제조기업은 최근 5년간 총 생산량 -0.4%, 수출은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타이어 업계는 성장 둔화를 탈피하고자 초고성능 타이어 생산 및 해외 공장 증설 등으로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주요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은 금리인상과 소비위축,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타이어 생산현황 (2012-2017(E))



※ 상세내용은 CMRI 시장분석 보고서- 엘라스토머 시장분석 및 전망(2018) 보고서 참조